2024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후서

메시지 13

신약의 약혼시키는 사역

성경: 고후 11:2-3

- I.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애하시고 마침내 그들과 결혼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이다—창 2:21-24, 아 1:2-4, 사 54:5, 62:5, 렘 2:2, 3:1, 14, 31:32, 겔 16:8, 23:5, 호 2:7, 19, 마 9:15, 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 21:2, 9-10, 22:17.
 - A.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치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창 2:21-22.
 - B. 바로 이 흐르고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게 한다—창 2:9-12, 22.
 - C.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려면, 그들 사이에 반드시 상호 사랑이 있어야 한다—호 11:4, 요 14:21, 23, 출 20:6, 렘 2:2, 31:3.
 - D.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넣으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시 119:140, 15-16, 엡 5:25-27, 고후 3:18.
- II. 사도 바울의 시역에 있어서 그의 부담은 믿는이들을 그리스도께 약혼시키는 것이었다—“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고후 11:2.
 - A.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혹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감상하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 B. 신약의 참된 사역은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해 단순하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을 강화시킴으로써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분발시킨다—고후 11:2-3, 3:3-6.
 - C.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으뜸의 자리, 즉 첫째 자리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우리 생활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 D.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서신의 결론의 말은 은혜의 축복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엡 6:24). 에베소서에서는 풍성한 느낌이 담겨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엡 1:4, 3:17, 4:2, 15-16, 5:2).
 - E.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누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엡 1:15, 2:4, 3:19, 5:2, 25, 6:23, 비교 요일 4:16-19.
 - F.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에서 돌아섰기 때문에(딤후 1:15, 계 1:4상), 결국 첫째가는 사랑을 떠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상실했다(계 2:4-5, 7).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은 역대로 교회가 실패한 주요 이유가 되었다(마 24:12, 막 12:30-31, 비교 계 3:14-22, 단 7:25).

G.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쓴 서신에는 네 가지 중점이 있다. 이 네 중점은 모두 영어 문자 ‘엘(l)’로 시작되는 네 단어, 곧 ‘사랑(li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이다.

1. 우리는 주님께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반드시 주님께 으뜸의 자리를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게 되고,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요 8:12, 엡 5:8-9, 13.
2. 생명의 빛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로서 빛나게 한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첫째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등잔대가 옮겨질 것이다—계 1:9-12, 20, 2:4-5.
3.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로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재화되고 표현되시는데,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증거이다—출 25:31-40, 슥 4:2-10, 계 1:10-12.
4. 신성한 사상에 따르면, 금등잔대는 실지로 꽃받침과 아몬드꽃이 있는 살아 있고 자라는 나무이다. 따라서 등잔대는 살아 있는 부활의 금나무이신 그리스도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묘사한다. 이 나무는 우리 안에서 자라고, 가지 번고, 싹이 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로부터 빛의 열매(그 영의 열매)로서 나와 꽃이 피는데, 그 열매는 본성에 있어서 좋고, 과정에 있어서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 실지적이어서, 우리의 매일의 행함 가운데 삼일 하나님께서 실재로서 표현되시게 한다—출 25:31, 35, 엡 5:8-9, 갈 5:22-23, 요 12:36.

III.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첫째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생명 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의 회복이다—계 2:4-5, 7, 엡 4:15-16, 계 22:14.

- A.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먹기에 좋으므로’(창 2:9)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주님을 먹고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주님으로 조성될 수 있다(창 1:26, 요 6:57, 63).
- B.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릴수록, 내용이 더욱 풍성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계 2:4-5, 7.
- C.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항상 주님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으뜸의 자리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전 존재를 누릴 것이다—고전 2:9, 아 1:1-4, 8:13-14.
- D.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 즉 우리가 영접한 바로 그 인격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에 의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랑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가 살아 낼 수 있게 한다—벧후 1:1, 히 12:1-2상, 고후 4:13, 갈 5:6, 요 1:12-13, 21:15-17, 골 3:4.
- E.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접한 바로 그 생명은 인격이시고,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인격이시므로,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현재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주님을 새롭게 접촉해야 한다—요 11:25, 14:5-6, 딤후 1:14, 요 14:21, 23, 고후 5:14-15, 계 2:4-7, 골 1:18하.
- F.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라. 그보다 더 유력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누림으로 충만한 길은 없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라. 그 외의 어떤 것도 주의하지 말라”—아가서에 계시된 생명과 건축, 영문판21쪽.
- G.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신다(요 14:21, 23).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셔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해 살게 하소서.”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계속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 주소서.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시키소서. 항상 저를 당신의 사랑과 현재의 임재 안에 지켜 주소서”-아 1:1-4.

- H.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내 주를 진정 사랑하지만 내 사랑 없으니/ 모든 사랑은 주의 것이라 사랑으로 사네/ 아무 것 아닌 나를 비워서/ 주님 안에서 삼킨 바 되리” (영한 동변 찬송가 546장, 1절). “다른 것을 사랑한 맘/ 결코 안식 못하리/ 주께 내 맘 드리고서/ 주만 사랑하리라” (영한 동변 찬송가 547장 1절).

IV. 고린도의 믿는이들을 그리스도께 약혼시킬 때, 바울은 그들에 대한 깊은 염려를 표현했다-“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고후 11:3.

- A.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유일한 가르침 외의 다른 가르침들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서 하와를 속이는 뱀의 말에 비유했다. 뱀은 하와를 미혹하여 생명나무를 누리는 단순성에서부터 복잡하고 복잡하게 하는 죽음나무인 선악 지식의 나무로 빛나가게 했다. 죽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서 분리되는 것이다-롬 8:6.
- B.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남편을 잃은 아내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은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한 것과 똑같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항상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해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호와와 의 조연을 구하고’(수 9:14),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고’(시 27:4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한다.
- C.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 외의 다른 가르침들은 우리를 우리의 남편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인격을 참되게 감상하고 사랑하고 누리는 것에서 떨어지게 한다-딤후 1:3-5.
- D. 참된 신약 사역을 분별하는 비결은 다만 다음과 같다. 우리를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뱀에 속한 것이지만, 주님에 대한 누림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영에 속한 것이고 신약 사역에 따른 것이다.
- E.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누려야 한다. 그분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고(고후 3:14), 눈멀고(4:4), 반역적이 되고(10:4-5), 부패하게 되는 것(11:2-3)에서 구출되어야 한다
- F. 우리는 “주님, 제 생각이 오직 당신께 초점을 맞추도록 제 생각을 살피시고 구출하소서.”(시 139:23-24)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구출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뜻한다(롬 8:6).
- G. 우리는 ‘한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빌 2:2).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외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불화가 생기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다(고전 1:10, 빌 3:8-9, 14, 4:2).
- H.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한가지, 곧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과 전부인 하나님의 경륜이다-골 3:10-11.
1.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공급해야 하는 한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딤후 1:3-4.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실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세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신성한 경륜이시다(요 1:14, 고전 15:45하, 계 1:4, 3:1, 4:5, 5:6).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순수하고 완전한 회복을 갖는 것이다(골 1:17하, 18하, 고후 12:2상, 2:10, 3:3)